

그라비아인쇄기 보일러 전문

인쇄기 모니터링기기 개발



김 경 천
부성엔지니어링 대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놓지 않으면서 꼭 필요한 사람과 장치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 일반적으로 보일러하면 가정의 열매체로 기능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생각하지만 산업 현장에서의 보일러는 제품 생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라비아 업체에 배관설비를 전문으로 공급하고 있는 부성엔지니어링 김경천 사장은 1983년 부성설비로 창업하여 배관설비, 각종 전기제어, 닥트, 그라비아 관련 기계 재료 등 통합적인 시스템을 제공 관리하는 Engineering & Consulting 전문업체로 발돋움하고 있다.

올해로 창업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계획하고 있는 부성엔지니어링은 성안기계 배관설비를 전담하면서 그라비아와 인연을 맺게되었고 1986년 부성엔지니어링으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사업분야를 세분화, 전문화하고 있다.

부성엔지니어링은 그라비아인쇄기, 드라이 라미네이팅기, T-Die, 백 메이킹기의 배관설비 및 에어 설비를 3,000곳 이상 시공하면서 고객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부성만의 노하우를 축적해가고 있다.

이런 기술적 노하우는 “이익 창출보다는 기술개발”이 우선이라는 김 사장의 생각에서 시작되었고 “남보다 빨라야 한다”는 모토를 만들었다. 그 결과 동종업체가 8도기 인쇄기 배관설비 작업을 6명이 15일에 마친다면 부성은 2명이 2일에 마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 부성엔지니어링 공장 내부

이는 그라비아와 관련된 설비를 이해하고 완벽한 준비를 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20년간 오로지 그라비아 관련 배관설비를 고집해 온 김 사장의 노하우가 베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부성은 응축수 회수 펌프 제조기술을 개발, 기존 외산 제품의 기능을 보완한 안전한 시스템으로 수입업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쉽게 버려지는 폐열을 효과적으로 회수하여 재

사용할 수 있도록 업체 실정에 맞는 폐열회수시스템을 설계, 컨설팅 및 시공하고 하고 있다.

효과적인 열 효율을 얻기 위해 수치화된 열교환 시스템을 제작하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배관라인의 한 부품인 By-pass를 정밀하게 제작할 수 있는 기계를 자체 제작, 생산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많은 업체들이 인식하고 있는 지관 절단기의 문제점을 보완, 안전하고 빠

르게 지관을 절단하는 지관절단기를 개발해 놓고 있다.

지관절단기와 함께 개발된 그라비아인쇄기계 잉크 순환 시스템은 현장의 고객 요청에 의해 개발된 제품으로 그라비아 인쇄업체가 갖고 있는 잉크 순환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신속한 잉크 교환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경화실 온습도 콘트롤시스템 및 시공기술, 동절기 보일러 동파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센서를 통한 자동 제어시스템을 개발

BooSung

해 놓고 있다.

부성은 앞으로도 인쇄 준비 작업에서 완료까지 모든 작업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인쇄기 모니터링 기기를 개발하고 있다.

인쇄기 모니터링기기는 인쇄로 인한 불량 발생률을 제로

에 가깝게 제어할 수 있으며 생산 현장의 인원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어 개발이 완료되면 그라비아 인쇄업계에 혁신적인 일이 될 것이라 회사 관계자는 밝혔다.

부성은 이같은 기술개발 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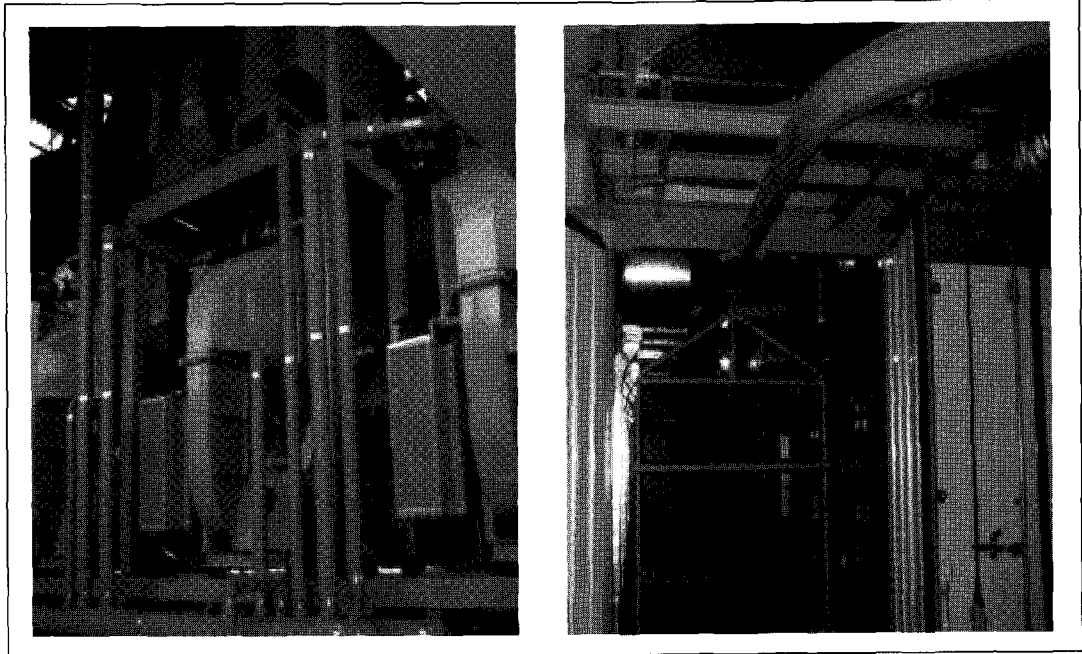
자 및 유지를 위해 각종 기술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데이터 유지, 보유 기술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실용신안 출원 등 기술기업으로서 발판을 다지고 있다. 부성의 조직은 지휘부를 중심으로 한 독립팀제로 운영되고 있다.

자동제어팀, 설비팀, 기술영업팀, 관리팀, 닥트팀이 철저히 독립 운영되어 신속한 의사결정과 처리로 고객에 대한 납기 단축, 고품질 제품 공급에 나서고 있으며 각 독립팀간 회의를 통해 업무를 결정하고 있다. 이 회사의 특이한 점은 자체 팀별 교육방법이다.

1단계로 반복적인 실무작업 수행능력을 배양하고, 2단계 기계 및 부속의 원리 이해, 3단계 시스템의 흐름 분석 및 적용훈련, 4단계 제 시스템의 응용 및 개발훈련을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전 직원이 최고라는 'Be the first'



▲ 부성의 기술 3역 문용석팀장(좌), 김경천 사장, 이성환 팀장(우)



▲ 부성이 제작한 배관 및 경화실 설비

의 교육모토를 내세우고 있다.

자체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완벽한 준비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부성에는 영업직원이 따로 없다. 모두가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뿐이다.

김 사장 역시 현장에서 기술 개발 및 생산에 전념하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매출액이 150%나 초과 달성하는(상반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없어서는 안될 사람을 넘어 없어도 될 사람이 되자”는 조금은 역설적인 표

현을 하고 있는 김 사장은 “직원 모두가 없어서는 안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누구 하나가 빠지더라도 모든 일에 차질없이 수행 가능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회사와 관련된 모든 기술과 경영상황을 전 직원이 모두 공유하여 대고객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신뢰를 쌓아 기업이 영속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김 사장의 의지이기도 하다.

각 팀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적 구성에서 보듯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만족시키는 통합관리 능력을 모두 갖추었기에 그라비아 인쇄업계 배관설비 분야에서 알차게 성장하는 부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소리없이 가려진 곳에서 이익보다는 기술개발을, 모든 것을 함께 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부성엔지니어링이 있기에 배관설비 업계는 밝다 하겠다. ☺